

Jean Paul Gaultier의 Haute Couture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

The Esthetic Characteristics in Jean Paul Gaultier's Haute Couture Work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조교수 김 선 영

Dept. of Fashion Desig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un-Young Kim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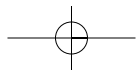
I. 서론	Couture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
II. Jean Paul Gaultier의 작품세계	IV. 결 론
III. Jean Paul Gaultier의 Haute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esthetic characteristics in the haute couture work of Jean Paul Gaultier, who represents the fashion in France and is famous for avant-garde and experimental works through dismantling, from the first haute couture collection in 1997 to the present. The materials for the study are the precedent studies, the related literature, and the photographs of the works and the interview articl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shion journals.

Three characteristics are revealed in his works. First of all, he provided a transcendental fashion different from the established wearing or ornamental ways by dismantling the dichotomies between male and female, time and space, and beauty and ugliness. Second, he reflected the decadent beauty recognized as representing women's sexual and provocative expression based on exposure, suppression, perversion, and grotesque manifestations by shaping an esthetic value within a different point of view. Finally, he was characterized as being transcendental with an eclectic fusion of intercultural differences or dynamics, items in costume formation, time and space, and eastern and western. This transcendental expression, Gaultier's desire for creativeness, can be an ideal characterizing this era.

주제어(Key Words): 오프꾸뛰르(Haute Couture), 고정관념의 해체(Deconstruction), 퇴폐성(Decadence), 절충성(Eclecticism)



1. 서론

패션은 영원의 미학 속에서 변화와 새로움을 중심적 가치로 삼는 일시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Calines, M, 1987). 특히 한 시대를 대표하는 패션디자이너에 관한 연구는 그 디자이너의 작품 속에 표현된 디자인의 각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그 시대 복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해 보고자 함과 동시에 디자이너가 작품을 통해 추구하는 새로운 미적가치와 시대상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다양한 패션의 흐름 속에서 패션디자이너는 그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먼저 흡수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끊임없이 시대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타일은 대중들에게 즉각적으로 수용되어 그 시대의 미적가치의 척도가 되거나 다음 시대를 위한 새로운 스타일 창조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패션계에 있어 전위적이고 해체를 통한 실험적인 의상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인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1997년부터 고급문화의 주류로 대표되는 오프 꾸뛰르 라인을 전개함으로써 그의 또 다른 창조성을 표현하고 있다. 장 폴 고티에에 관한 선행연구는(김미량, 2000; 김은실, 배수정, 2000; 문행숙, 1998; 박여희, 2004; 최영옥, 2001) 주로 해체주의 이론과 관련된 연구나 그가 디자인한 영화의상 또는 콘서트의의상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오프꾸뛰르(Haute Couture) 라인에서 전개되는 미적 특징은 무엇인지 연구되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 폴 고티에의 오프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장 폴 고티에가 프레타 포르테(Prêt-à-Porter)를 통해 표현해 온 전위적인 작품이 아닌 오프꾸뛰르 라인을 통해 표현된 작품들의 미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 또한 감성적 분야라 할 수 있는 창작 디자인의 방법을 이해하고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범위는 대중성에 대한 고려가 더 많은 기성복 라인인 아닌 디자인이나 테크닉에 있어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오프꾸뛰르 라인에서 전개된 작품만으로 한정하여 1997년 첫 오프꾸뛰르 컬렉션부터 현재까지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선행 연구와 관련 문헌 및 작품집, Vogue, Bazaar, Collections 등 국내의 패션전문지에 게재된 작품사진과 인터뷰 기사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II. Jean Paul Gaultier의 작품세계

패션계의 양팡테리블(L' enfant terrible: 무서운 아이)로

불리는 고티에는(Valerie Mendes & Amy de la Haye, 2003: 258) 1952년 파리 교외의 아르퀴르(Arcueil)에서 출생하였고, 미학자인 할머니의 영향으로 여성 화장품과 의상이 연출하는 결과로 생기는 변신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는 패션잡지와 피에르 가르맹(Pierre Cardin)이나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같은 디자이너의 영향을 받고 15세 때부터 디자인을 시작했다. 18세 때 파트타임으로 그를 고용하겠다는 피에르 가르맹의 답장을 받게 되었으며 1971년부터 몇 달 동안 자크 에스트렐(Jacque Esterel)사에서 일했고, 장 파투(Jean Patou)사에서 2년 동안 미셸 고마(Michel Goma)와 안젤로 타를라치(Angelo Tarlazzi)의 어시스턴트로 근무했으며, 1974년부터 피에르 가르맹사에서 일했다(라사라 패션정보, 1999: 117).

1976년 고티에는 첫 컬렉션에서 록 음악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당 시대의 사회, 문화적 모든 풍조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을 작품에 표현하면서 앞으로 그가 지향하게 되는 여러 스타일들을 특징짓게 하였다. 그의 컬렉션은 1979년 'James Bond', 1981년 'High Tech', 1983년 'Le Dadaisme', 1985년 'Barbes' 등 한 가지 주제만으로 컬렉션이 진행되었으며, 1984년 첫 번째 남성복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특히 고티에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남성복의 개혁으로 1985년 남성을 위한 스커트를 발표하였고(그림 1), 1986년 'French Gigolo'를 통해 몸에 꼭 맞는 남성복을, 1990년 'Rap sodly in Blue'에서는 클래식한 전통 정장을 해체하여 다시 혼성된 작품 등을 발표하였으며, 1985년 남녀양성을 주제로 한 'Une garde-robe pour deux'를 발표한 이래 성의 경계를 해체시켰다(Farid Chenoune, 1996: 74-75). 즉 고티에는 1980년대 의복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중세 이래 서구사회가 명확하게 구분 지은 '남성의 옷', '여성의 옷'이라고 하는 복장상의 성의 경계선이 흔들리고 있던 것에 착안하여 성을 구별해주는 도구로 옷이 이용됨을 거부하였으며, 고정관념에 도전하여 언더웨어의 아우터웨어화를 구체적인 예로 나타내어(이경희, 2001: 199)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고티에가 "나는 어떤 것도 창조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옷을 입어야 할지 문제를 제기할 뿐이다."라고 한 것처럼 옷을 단순히 인간이 창조해내는 피조물이 아닌 살아 숨쉬는 생명체인 독립된 객체로 보면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의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라사라 패션정보, 2000: 185-186).

마릴렌느 델브르그-델피(Marylene Delbourg-Delphis)가 그에게 바친 전공 논문인 『생활을 위한 패션』에서 "그의 컬렉션은 모양을 내는 시대에 초연한 태도를 취하는 지식을

되찾게 하거나 준비하게 하고 잠재적 문화의 유산에 속하게 한다.”(라사라 패션정보, 1999: 117)라고 한 것처럼 그의 첫 컬렉션 이후 젊은 대중과의 접촉을 통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의 발상은 골티에를 패션에 있어서 가장 파괴적인 인물 중의 하나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골티에는 섹스클럽 의상과 연계하여 변화가 상점들 사이에서 코르셋 스타일을 도매로 취급하면서 하위문화와 주류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으며, 골티에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진 1990년 가수 마돈나의 블론드 앰비션 투어(Blonde Ambition Tour)는 핑크와 금색으로 된 윙볼형 브래지어로 패티시에 바치는 찬가가 되었다(Andrew Tucker & Tamsin Kingswell, 2003: 95)〈그림 2〉. 이 마돈나의 의상에서 보여준 충격은 비밀스러운 속옷을 공식적인 무대라는 외부로 드러냄을 통해 기존의 옷에 있어 안과 밖의 개념이 무너지므로써 파생된다. 그 충격은 양면적으로 마치 판도라 상자가 열려졌을 때 쏟아져 나온 것들에 대한 당혹스런 고통감과 굳게 잠겨 있던 신비가 풀렸을 때 느껴지는 해소감의 이율배반 등은 의복의 완전한 존재성에 대해 우리가 갖는 기대감에 대해 일종의 폭력적 해체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김민수, 1994: 177).

마돈나의 의상 외에도 골티에의 실험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은 1985년 〈Le Defile〉, 1990년 〈ANA〉 등의 무대의상 디자인, 1989년 〈Le cuisinier, Le voleur, Sa femme et Son amant〉, 1994년 〈Kika〉, 〈La cite des enfants perdus〉 등 영화의상에서도 표현되었다(Bruno Remaury, 1994: 286).

이러한 타 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창작의 의지는 의복의 소재가 아닌 밀가루 반죽을 이용한 제빵 분야와의 접목에 있어서도 적용되었다. 2004년 6월 파리 까르띠에 현대예술재단(La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에서 열린 'Pain Couture by Jean Paul Gaultier' 라는 전시를 통해 제빵과 패션의 두 분야를 접합시켜 골티에 특유의 유머가

넘치는 드레스와 액세서리들을 발표하였다(그림 3). 이는 패션의 순간적인 일시성을 제빵이라는 리얼리즘과 꾸뛰르적인 감성의 혼합에서 나오는 예측 불가능한 반응들로 이루어낸 흥미로운 작업으로 골티에만의 창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76년 프란시스 메뉴즈(Francis Menuge)와 함께 장 폴 골티에 레이블을 탄생시켜 단 2년 만에 대성공을 이룬 그의 브랜드는 현재까지도 기상천외한 섹시함에 때로는 유머러스하고 도발적인 감각으로 어떠한 가치에도 구애됨 없이 패션 피플들을 사로잡고 있다(“Blonde Gaultier”, 2001: 168-170). 1978년 컬렉션은 골티에와 그의 파트너인 일본 카시야마(Kashiyama)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1981년부터 파트너 교체로 장 폴 골티에의 생산 및 유럽지역의 판권 계약은 이탈리아 Gibo사의 후원과 Equator 덕택으로 보완되었고 카시야마와는 미국과 극동, 일본지역을 위한 라이선스 판권만을 소유하였다. 그러나 1990년 Gibo사의 주식을 카시야마에서 100% 인수하여 합병함으로써 장 폴 골티에에서는 카시야마 소유가 되었다(라사라 패션정보, 2000: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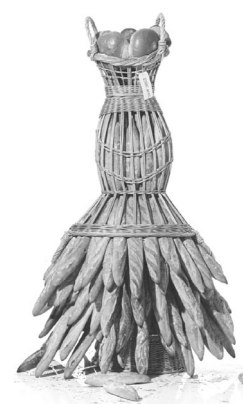
늘 해방된 감각을 자랑하며 도발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왔던 골티에는 1993년에는 독자적인 여성용 향수를, 1995년에는 남성용 향수를 런칭하였고, 1997년부터 오프꾸뛰르 라인을 시작하여 패션하우스와 오프꾸뛰르의 최고점에 서 있다. 오프꾸뛰르에서는 그가 초창기에 보였던 원초적인 섹시함은 숨겨졌지만 골티에 특유의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의 짝지움’이나 ‘속옷 섹시즘’ 역시 여전히 여전하고 몸 그대로를 응용하는 감각은 변함없이 천재적이다. 이러한 그의 감각은 1998년 에르메스(Hermès)로 하여금 2천만 프랑을 들여 장 폴 골티에 레이블을 35% 공유하게 하였다(“Blonde Gaultier”, 2001: 168-170). 1988년 주니어 골티에를 런칭한 이후 장 폴 골티에 라벨 외에도 세컨드 라인인 JPG와 골티에 진 라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에르메스의 수석디자이너



〈그림 1〉 남성을 위한 스커트



〈그림 2〉 마돈나 의상, 1990년



〈그림 3〉 Pain Couture 전시의상

너를 맡고 있다.

III. Jean Paul Gaultier의 Haute Couture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

장 폴 골티에는 지금까지의 의상의 구조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구성하려는 의욕과 패기가 넘치는 제 3세대 디자이너의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으며(Teri Agins, 2001: 47)어떤 하나의 스타일에 얽매이기보다는 모든 고정관념을 초월하여 다시 혼합하고 재구성시키고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 자유분방하고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주며 아방가르드하게 표현하여 패션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다.

1997년 오프꾸뛰르 라인을 전개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장 폴 골티에의 오프꾸뛰르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성은 고정 관념의 해체, 퇴폐성, 절충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1. 고정관념의 해체

20세기 후반 기존 모더니즘 문화 현상에 대한 반발로 탈모더니즘 현상이 대두되면서 기존 개념들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인식과 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되어져 본질주의적 형이상학의 전통이나 발전적 역사관을 거부하는 차이의 다양성에 대한 주목, 경계 허물기, 모순된 요소들의 결합, 본질주의적 의미 실질과의 연과 거부 등의 내적 논리가 대두되었다(김혜숙, 김혜련, 1990: 309).

해체주의는 1966년 자크 데리다(J. Derrida)를 중심으로 나타나 그 동안의 경직되고 고정된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하였으며 해석의 불가능을 시사하였다(김지연, 전해정, 1997). 이는 해체라는 단어조차 해체하는 모든 텍스트들에 대한 해체이며 개체의 존엄과 자유, 차이, 타자, 역사성을 인정하고 그 동안의 고정된 서구 이성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하였다(김성곤, 1988: 15).

패션에서 '해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9년 디테일즈(Details)라는 잡지의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해서로 기존 의복구성이나 디자인의 원리들을 해체시키고 재구성한 양식들로 나타났다(김은실 외 1인, 2000). 의복의 형태는 시대 즉 사회 환경에 따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20세기 후반 경제적 위축과 정치상황의 급변에 따른 정신적인 긴장감 고조, 다음 세기への 기대감 등 사회적 정체성이 불안정해지면서 정신과 물질이 분해되어 가치관의 파괴로 이어지고 예술에 있어서는 절충주의와 함께 기존의 규범에 대한 해체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상례, 1997).

해체주의 특성은 텍스트의 혼합사용, 소외된 타자의 부가 등의 경향이 나타나면서 그 외적 형식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즉 성의 해체를 통한 새로운 시각의 제시와 착장 방식 및 디자인의 변형을 통한 스타일을 들 수 있다(임은혁, 2003).

해체주의 시기에 해당하는 문화에서는 문화적 범주들의 내재적 긴장 또는 양면가치를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란 성의 하위문화로 패션을 나누는 이분법이 사라지게 되었다(이민선, 1993). 특히 골티에의 작업은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의 경계를 허무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골티에는 하위문화 패션의 전통적 신념을 비웃는데 이용하여 자아도취적 남성성과 여성적인 과시의 융합을 시도하였다(임은혁, 2003).

〈그림 4〉의 넓게 퍼지는 톨 드레스는 드레스 셔츠, 넥타이, 숄과 함께 연출되어 남, 여성의 상징적인 복장 형태를 혼합하여 양성적인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표현한 것이다. 골티에의 성의 해체 경향은 이와 같이 아이템의 공유를 통해 표현되어지고 있다. 남·여성의 특징적인 아이템을 한 의상에 조합함으로써 양성이 공유된 통합성을 표현하거나 중성적 느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림 5〉는 컬렉션의 피날레 무대에서 남·여 모델이 입은 흰 니트에 베일을 착용한 웨딩의상으로 단순한 유니섹스를 넘어 양성이 같은 의복을 공유하되 다른 방식으로 착장함으로써 오히려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보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의상을 통한 이러한 성의 해체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보는 해체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경계를 무너뜨린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화되는 남성, 남성화되는 여성이 만나는 점점의 성을 초월한 제 3의 성의 대두를 예고하고 있는 듯하다. 골티에에게 있어 제 3의 성은 남성 혹은 여성만을 위한 옷이 아닌 남, 여 모두를 위한 공동의 패션을 제안하는 것이다(김은실 외 1인, 2000).

특히 골티에의 작품에 나타난 탈구성적 경향은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내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형태의 왜곡과 과장, 기존 구성방식의 탈피 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열린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해체주의는 사물을 분리하고 절단하며 부수고 조각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진 부분들과 조각들은 설득력 있는 원칙 하에 재구성하는 개념으로(임은혁, 2003) 〈그림 6〉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테일러드 재킷의 허리부분과 앞가슴 부분을 해체시켜 예술적 창작미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인 틀은 유지되었지만 해체주의적 성향의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다. 〈그림 7〉은 착장방법에 있어서도 착장자에 의해 혹은 감상자의 해석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르게 연출되고 재해석 되는 미완성의미를 불확정적으로 확장



〈그림 4〉 1998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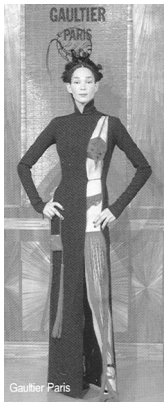
〈그림 5〉 1998 F/W



〈그림 6〉 2001 S/S



〈그림 7〉 2002 S/S



〈그림 8〉 2001 F/W



〈그림 9〉 1998 S/S



〈그림 10〉 1997 S/S



〈그림 11〉 2002 S/S

연출하고 두르기, 매기, 겹치기 등의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골티에 작업의 주요 특징인 속옷의 겹옷화 즉 인프라 (Infra) 현상은 세기말적 해체주의 복식의 대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미지, 목적, 용도가 다른 아이템이 상호 인용되어 부조화 속의 조화로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8〉은 중국 전통복인 치파오의 형태를 해체하고 붉은 란제리를 노출시켜 겹옷과 일체화 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드러난 인체와 의상은 관능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그림 9〉는 18세기에 유행하였던 빠니에 스타일의 형태 고정을 위한 버팀살을 골티에적 감각에 의해 우아한 드레스로 표현한 것으로 테이핑 기법을 통한 이 작품에서 가다가닥 떨어지는 테이프는 인체 내부와 외부 표현하는 동적인 언어의 형태이며(김선영, 2001)이런 동적인 모티브는 균질한 과거의 표현을 왜곡이나 동적인 형태 등을 통해 복식의 고정관념을 해체시킨 것이다. 〈그림 10〉 역시 속옷을 겹옷 화함으로써 인체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속옷들은 전통적으로 여성 인체를 억압하고 여성의 매력을 나타내는 도구였다. 그런데 오늘날 속옷의 겹옷화 현상은 기존 성의 인식의 굴레

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모순적으로 여성 인체를 관능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김수경, 1998).

속옷 같은 겹옷이 유행하며 이제까지의 의복에 관한 고정관념인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겹옷을 입는 그 관념에 대해 장 폴 골티에는 “우리 시대의 패션에 터부란 없다. 속옷의 아름다움을 감추어 두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라고 말하였듯이 겹옷 위에 입은 속옷은 더 이상 속옷이 아니라 겹옷으로 그 기능이 전이된 것을 볼 수 있다(이상래, 1997).

이와 같이 장 폴 골티에의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지닌 고정관념을 변형과 왜곡을 통한 아방가르드적 해체의 특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의 해체로 보인 작품들은 내면적으로는 기본 원칙에 의한 꾸뛰르적 감성 표현을 위한 작품 구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퇴폐성

현대사회는 경제 불황에 따른 좌절감과 문명의 위기로 인한 인간 존엄과 가치상실을 지각하고 이에 대하여 절망적으로 항의하는 동시에 현대 문명 속에서 파괴되어가는 인간의



〈그림 12〉 2002 F/W



〈그림 13〉 2001 S/S



〈그림 14〉 2001 S/S



〈그림 15〉 1998 S/S

모습을 가지적으로 인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장미숙, 1997). 이러한 퇴폐성은 자연스러운 인체에 자극적인 장식을 하거나 성적으로 노출 화합으로써 부자연스럽고 불건전한 양상을 보이며 극도의 선정적인 에로틱한 이미지로 패션에 나타나고 있다(신정희, 유태순, 2001).

예로부터 신체의 특정부위를 인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인체의 미 이상형을 노출로 강조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의 성 문화 역할에 의하여 성은 자유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육체의 재발견을 고취하는 광고, 대중문화, 그리고 유행에 의하면 여성의 인체는 끊임없이 가꾸어지고 자유로워야한다. 그러나 여성의 인체는 성적부위의 노출 및 인체 전 부위의 노출을 드러내며 나아가 노출 자체를 위한 여성 인체의 관능미를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성향을 띤다(김수경, 1998).

몸에 꼭 끼는 옷을 입어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 인체의 암시적 노출을 하기도 하고 〈그림 11〉과 같이 가볍고 얇은 질감의 시폰, 망사, 레이스 등 비치는 소재 너머로 보이는 부분 노출된 인체의 미는 상상력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그림 12〉는 어스트로 헝가리안(Austro-Hungarian)의 주제로 발표한 작품으로 상체는 장신구로만 장식한 채 상반신 전체를 노출하고 있다. 즉 부분적 성징의 의사 노출로 성징이 되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왜곡, 강조하는 것으로 골티에가 프레타 포르테에서 보여 주었던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는 고도의 테크닉과 장신구의 이용으로 퇴폐적인 낭만주의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과 강조의 노출을 통해 해석되는 인체는 기능 및 역할에 의하여 상징화되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유희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유방, 배, 엉덩이, 다리 등 각 부위가 새로운 의미로 여성성에 기초한 관능미를 강조하게 된다(김수경, 1998). 〈그림 13〉은 수백 개의 리본 테이프를 연결한 드레스로 드레스의 앞, 뒷면을 서로 다른 구성을 통해 눈속임을 통한 암시적인 노출을 표현하여 인체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림 14〉는 마치 인체 전신에 문신을 한 것처럼 보이는 드레스로 노출을 극대화하고 있

다. 이와 같이 노출 부위가 가슴에 국한 되다가 특정 부위 또는 전신을 강조하는 과감한 표현은 패션이 환유적인 시각화를 통해 성적 자극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매체임을 보여 주기도 한다(김양희, 박선경, 2002).

최근 컬렉션들은 그 동안 억압되었던 성적표현의 욕구를 분출하여 성에 대한 개방과 집착이 패션 이미지에 과도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는데 노출을 통한 것에서부터 도착적인 내용까지 그 표현력은 극대화 되어가고 있다(손미희, 1999). 골티에는 〈그림 15〉와 같이 남성 모델에게 가벼운 느낌의 광택이 나는 소재와 부드러운 이미지의 리플 장식으로 된 풍성한 X자형 실루엣의 드레스를 입고 긴 웨이브의 헤어스타일과 여성스러운 메이크업을 하여 여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이러한 성의 모호성을 야기시켜 종래의 성 개념을 초월하여 변증법적인 새로운 여성상이나 남성상을 탄생시키는 골티에의 작업은 초창기 그의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꾸뛰르 라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테마로 보다 정제되고 꾸뛰르적 감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최근 패션경향에서는 복식을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을 결합시켜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양성적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인위적이고 왜곡되고 변태적인 것 등 추한 미가 새로운 미의식으로 인정되면서 비정상적으로 간주되었던 성의 여러 개념들이 일부 하위문화 집단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김양희 외 1인, 2002) 오프꾸뛰르와 같은 고급문화 또는 주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는 시기에 이른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골티에의 복장 도착 행위는 동성애적 성향의 컬렉션으로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다.

또 여성의 도발적인 성적표현을 암시하는 듯한 퇴폐미를 또 다른 데카당스미로 형상화하여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림 16〉은 로코코 시대의 과장된 머리장식을 차용하여 이질적인 재료의 접합, 퇴폐적인 분위기 표정 등으로 연출하여 공감각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김선영, 2001). 비정상적이고 과상하고, 기이한 형태의 패션이미지들이 그로테스크는 정도가 지



〈그림 16〉 1998 S/S



〈그림 17〉 1997 S/S



〈그림 18〉 1997 S/S



〈그림 19〉 2000 S/S

나쳐 정상의 상태를 벗어난 극단적인 상태를 보여 소외되고 낮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한다(김양희 외 1인, 2002). 〈그림 17〉은 마치 앵무새를 연상시키는 듯한 화려한 색상의 깃털로 장식한 콤비네이션으로 그로테스크한 메이크업과 함께 인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즉 인체변형, 화장, 마스크, 과도한 가발 등으로 완전한 양면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골티에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갈등, 충돌, 그리고 이질적인 것의 혼합은 창조의 근간으로 상반된 디자인 요소의 결합, 소재의 비 일성성, 노출, 초현실적 요소의 도입, 성적 모호함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작품에서 보이는 노출과 은폐의 상반된 디자인 방법의 공존과 성도착, 그로테스크한 표현 등은 아이러니한 성적 퇴폐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절충성

제임스 레버(James Laver)가 복식은 육체의 의복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신의 의복이며 그 시대나 사회의 생활감정의 표현내지는 상징으로서 존재하며, 사회·문화적 거울로 문화 현상의 누앙스를 반영한다고(Amy de la Haye, 1996: 11) 했듯이 골티에의 작품 안에서도 문화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후반에 보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간의 확고한 경계의 해체로 탈권력주의 의지, 탈중심화 현상으로서 이로 인해 통속적인 대상에 파격성과 새로움을 표현하여 이 대상들이 본래 지니고 있던 속성을 변형하여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게 하는 것으로 대중문화 속의 트렌드들이 고급문화인 오프꾸뛰르 컬렉션의 주요 테마가 되기도 하여 포스트모던 패션의 경계의 불확정성, 해체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김선영,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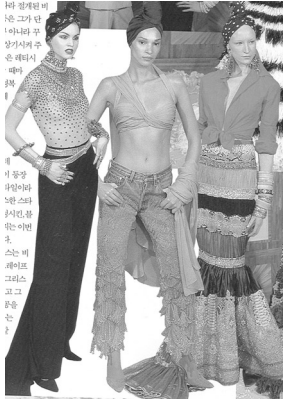
골티에는 우리 시대의 이질적인 경향들을 서로 절충하고 결합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의 디자인 전개 방법은 우선 룩의 연구, 특히 외관의 변형에 있으나 개혁의

도발적인 성격은 따로 취해진 단품에서보다 오히려 그 총합에 있다(라사라 패션정보, 2000: 185). 골티에는 일반적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감각을 연결시키는 재능과 도발적인 환상의 터치를 이용해서 오프꾸뛰르의 엄격성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변화시켰다.

〈그림 18〉은 대중문화의 상징인 진을 사용하여 마치 자수한 것과 같은 착시를 일으키게 하여 우아함을 표현한 드레스로 기존 오프꾸뛰르 컬렉션에서 보이는 최고급 소재들에 대한 환상을 무너뜨리고 있으며(김선영, 2001)진 거친 이미지를 우아한 실루엣에 도입시켜 부드럽게 완화시키고 있다. 〈그림 19〉 역시 원래 군복에 사용되던 카뮤플라주(Camouflage) 프린트를 300m의 톨을 이용하여 군복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미지인 이브닝드레스에 사용하여 크로스 오버 느낌을 강조한 의상으로 밀리터리룩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추의 미학을 전복시키면서(김선영, 2001) 상류층의 기호와 취미에 접근하고 있다.

절충주의는 좁은 의미로 각기 다른 분위기의 단품 아이템을 코디네이션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나(김문정, 1995) 넓게는 상이한 견해, 이론, 사상 등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나 기존의 영역을 넘어서 서로 교류하거나 이를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영향의 모색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양한 문화에 있어서도 그 스타일들의 경계와 구분이 흐려지게 된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 병치에서 오는 재치 있는 스타일의 혼합을 의미한다(임은혁,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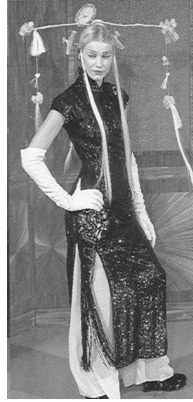
과거 프레타 포르테를 통해 골티에가 전개해 온 몽고, 에스키모, 일본, 멕시코 등 다양한 에스닉에의 심취와 같이 오프꾸뛰르 라인에서도 또 다른 이국적인 문화를 고급스럽고 모던한 감각으로 변형시켰다. 〈그림 20〉은 2000 S/S에 ‘인도 여행으로의 초대’라는 주제 아래 발표한 작품들로 컬러풀한 터번은 인도풍의 분위기를 준다. 목에서 어깨까지 늘어뜨린 세공 장신구들은 화려한 장식의 머메이드 스커트와 화



〈그림 20〉 2000 S/S



〈그림 21〉 2000 F/W



〈그림 22〉 2001 F/W



〈그림 23〉 1998 S/S

려함을 더하고 있고, 가운데 작품은 열흘에 걸쳐 블루진의 울을 풀어 밑 부분에 자수를 놓은 바지로 에스닉한 분위기 속에서 히피적 감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자수와 보석 장식 등을 이용하여 과시적 사치를 표현하고 있으며 과거 하층민의 취향이 추의 미학과 결부되어 상류층의 기호를 만족시키고 있다(김선영, 2001). 반면 〈그림 21〉은 인도 여행에서 받은 영감을 골티에적 감성으로 해체하고 다시 조합하고 있다. 인도 사리의 착장 방식을 차용하였으나 전통 실크가 아닌 체크무늬 원단이 주고 있는 이미지는 기존 전통미를 거부하고 있으며 바이어스 커팅을 사용하고 가닥가닥 잘려진 드레스 밑단은 율동미를 가중시켜 연속적인 시각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있다(김선영, 2001).

인도풍에 이어 2001 F/W는 〈와호장룡〉, 〈화양연화〉 등 중국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중국에 매료된 컬렉션을 발표했다. 〈그림 22〉는 금사로 장식한 치파오 응용 드레스와 팬츠를 골티에만의 레이어드 감성으로 연출한 것으로 변형된 치파오 드레스를 장식하고 있는 술 장식과 긴 헤어스타일, 흔들리는 헤어 장식은 전체적인 통일감과 함께 움직임의 표현을 가중시킨다.

스타일상의 고유성, 특이성, 개별성이라는 모더니즘의 토양에서는 원본을 조롱하는 모방을 만들어 낼 수 있으나 고정된 스타일이 아닌 스타일의 이질성만이 있을 뿐 원본 자체가 사라진 현재의 상황에서 패러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파편화되고 역사성을 무시한 절충주의가 범람하게 된다(Jameson, F, 1991: 16-25). 〈그림 23〉은 18세기 남성복식에서 받은 영감을 여성복에 전이시켰으며 밀리터리 이미지의 소재는 고급스런 자수 장식으로 기존의 이미지 대신 우아함으로 표현되어 남성과 여성, 과거와 현재, 대중문화와 고급문화가 복합된 절충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이미지를 현대로 혹은 미래로 재조명한 시간상의 절충은 이중적 개념에 의해 의미나 진리도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과 완전히 부

합될 수 없음을 지시하는(김지연 외 1인, 1997) 테리다의 의미처럼 골티에가 표현한 현재에 결합된 과거 양식은 과거의 정서, 의미가 아닌 전혀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준다.

해체와 혼성모방, 절충주의, 다원주의로 특징되는 현재의 포스트 모던시대는 새로운 모드는 없으나 매해 패션의 트렌드는 급속도로 빨리 변화한다. 즉 제시된 하나의 유행을 추종하는 시대가 아닌 다원주의 시대인 것이다(성광숙, 이순홍, 2004). 패션에서 대중적인 트렌드와는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오프꾸뛰르 라인에서 사회·문화, 시·공간, 동·서양을 넘나드는 복합절충적인 표현은 골티에의 새로움에 대한 변화의 욕구이며 이 시대를 특징짓는 하나의 이상이기도 하다.

IV. 결 론

패션은 한 시대의 모든 양식을 나타내는 문화적 총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문화를 표방하는 현대패션의 경향이 다양한 개성을 지닌 다수를 상대로 하여 자유로운 패션의 장으로 전개되어 나가면서 이제는 트렌드의 설정이라는 개념자체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변화와 새로움의 추구를 위해 다양한 매체들과의 상호연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패션의 흐름 속에서 패션디자이너는 그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먼저 흡수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끊임 없이 시대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계에 있어 전위적이고 해체를 통한 실험적인 의상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인 장 폴 고티에의 오프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골티에는 해체주의 문화현상을 패션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로서 남성과 여성, 시간과 공간, 미와 추를 구별하는 이분법을 해체시키고 기존 착장방식의 고정관념에

서 벗어나 시대와 형식을 초월한 패션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지닌 고정관념을 변형과 왜곡을 통한 아방가르드적 해체의 특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기본 원칙에 의한 꾸뛰르적 감성 표현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도발적인 성적표현을 암시하는 듯한 퇴폐미를 새로운 각도에서의 미적가치로 형상화하여 표현하는데 골티에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갈등과 충돌, 그리고 이질적인 것의 혼합은 그의 창조의 근간으로 노출과 은폐의 상반된 디자인 방법의 공존과 복잡 도차 행위를 통한 성도착, 그로테스크한 표현 등은 아이러니한 성적 퇴폐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존 규범에 대한 해체와 다원주의적 사고에 의해 문화의 차이나 다양성, 복식구성의 아이템, 시·공간, 동·서양을 초월한 다층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절충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은 골티에의 새로움에 대한 변화의 욕구이며 과거보다 개인 취향이나 스타일을 우선시하는 이 시대를 특징짓는 인간존중의 경향을 표현한 하나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디자이너가 작품을 통해 추구하는 새로운 미적가치와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패션디자이너가 디자이너의 분명한 의도에 따라 일상적인 사고를 초월하여 창작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감성적 분야라 할 수 있는 창작 디자인의 방법을 이해하고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설정 에 하나의 지침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문정(1995). 20세기 말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량(2000). 장폴 골티에 영화의상에 나타난 양면가치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수(1994). 모던 디자인 비평. 서울: 안그라픽스.
- 김양희, 박선경(2002). Haute Couture 컬렉션에 나타난 데카당스적 특성 연구. 복식, 52(8), 73-86.
- 김은실, 배수정(2000). 장폴 골티에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의 고찰. 가정과학연구, 10, 60-71.
- 김선영(2001). 오프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패션의 경향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곤(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 김수경(1998). 서양복식에 표현된 여성 인체의 해석에 관한 고찰. 복식, 37, 163-180.
- 김지연, 전혜정(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복식, 32, 293-312.
- 김혜숙, 김혜련(1990). 예술과 사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라사라 패션정보(1999). 20세기 유행의 변천사 2. 서울: 라사라 패션정보.
- 라사라 패션정보(2000). 세계의 패션디자이너 1. 서울: 라사라패션정보.
- 문형숙(1998). 장 폴 골티에의 패션세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여희(2004). 장 폴 골티에 콘서트 의상의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광숙, 이순홍(2004). 서양복식에 나타난 양적과정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복식, 54(6) 증보판, 101-118.
- 손미희(1999). Post modern-feminism의 문화현상과 패션. 복식, 46, 49-66.
- 신정희, 유태순(2001). 현대패션 및 메이크업에 표현된 데카당스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1(7), 63-74.
- 이경희(2001). 20세기의 모드. 서울: 교학연구사.
- 이민선(1993).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례(1997).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겉옷화 현상. 복식, 35, 325-342.
- 임은혜(2003). 21세기 전환기 하이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복식, 53(2), 71-86.
- 장미숙(1997).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 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옥(2001). 장 폴 골티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경향. 복식문화연구, 9(4), 26-43.
- Andrew Tucker & Tamsin Kingswell (2003). 김은옥 역. 패션의 유희. 서울: 예담.
- Teri Agins (2001). 박문성 역. 패션디자이너의 세계. 서울: 씨엔씨 미디어.
- Valerie Mendes, & Amy de la Haye (2003). 김정은 역.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아트.
- Amy de la Haye (1996). *The Cutting Edge*. London: Victoria & Albert Publition.
- Bruno Remaury (1994). *Dictionnaire de la mode au XX^e Siecle*. Paris: Editions du Regard.
- Calines, M. (1987). *Five faces of Modernity*. Duke university Press.
- Farid Chenoune (1996). *Memoire de la mode-Jean Paul Gaultier*. paris: Assouline.
- Jameson, F. (1991).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London: Verson.
- "Blonde Gaultier" (2001. 1). Elle Korea, 168-170.

(2005년 8월 19일 접수, 2005년 11월 1일 채택)